



말레이시아

육계 폐업능가 증가로 대책마련 부심

사료가격이 40%이상 증가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도시 무아르에서는 육계 농장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지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무히틴 야신 농산업부 장관은 지역 연설에서 브로일러 농장들의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닭고기 수급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닭고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전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집주변에서의 육계 사육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내 소비량을 조절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는 정부가 사육을 위한 기술적인 노하우와 자금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까지는 공급부족 현상은 없지만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닭고기 수입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질

유럽 흉작으로 유럽 수출 급증

브라질의 2007년도의 옥수수 수출량은 약 800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나 수출의 호조를 보여 종전의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별 수출량을 보면 특히 7월 들어서부터 1개월당 100만 톤을 넘는 양이 수출되고 있고 그 수출국을 보면 유럽 제국의 신장이 뚜렷하다.

이것은 유럽에 있어서 6월 이후 북부의 호우에 의한 흉수, 중동유럽의 열파나 한발의 영향을 받아 곡물 생산량이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농무부(MAPA) 농업정책국 담당관은 “유럽에서는 브라질의 옥수수를 가축사료 뿐만 아니라 소맥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용 수출증가 경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아 2007년도의 수출량은 1,000만 톤을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국가식량공급공사(CONAB)도 2007년도의 수출전망을 950만 톤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 호조가 이어져 생산자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브라질 국내의 2007년도 재고량이 893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으로 생산자가격이 최저가격(2008년도 농업플랜에 의하면 해당지역의 옥수수

최저 가격은 60kg당 14,000리알)을 밀도는 상황이 보여 7월에는 유통조건이 불리한 북부 및 중서부산 옥수수를 원활히 유통시키기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리한 이후 수출의 호조로 재고량은 당초 예측 893만 톤이 아닌 700만 톤까지 감소될 상황변화로 생산자가격은 다시 올라갈 전망이다.(AW)

일본

캐나다산 가금육 등 수입 일시중지

농림수산성은 28일, 캐나다에서 AI(H7N3아형)의 발생이 있었다는 주일캐나다대사관으로부터의 통보를 받고 이 질병이 일본으로의 침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금육 등의 수입을 28일부로 일시 중지함과 동시에 캐나다 정부에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것을 관계기관에 통지했다.

농림수산성은 발생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정지하는 것은 가금 등이 바이러스에 감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식품위생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무성 무역통계에 의하면 2006년에 캐나다로부터 초생추 60,738수, 가금육 등 170톤, 가공란 등 2,525톤을 수입했었다.(일본농림수산성)

중국

28만 위안 통닭 화제

자그만치 한 마리에 28만 위안(한화 약 3천4백만원)이나 하는 통닭이 있다고 중국의 신화사 통신이 보도했다.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기조차 어렵다는 이 통닭은 이가 금강석이 아니면 물어뜯지도 못하며 전시

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 9월 23일 손님들에게 통닭을 보여주고 있는 금점 점원의 모습으로 요즘 중국 산둥성 제남시 제로금전(齊魯金店)에 전시되어 뭇 눈길을 모으고 있는 석조(石雕) “통닭”이다. 이 “통닭”은 2,200g이나 되는 수산석으로 조각해 만든 것으로 빛깔과 광택이 선명하고 실물처럼 박진감이 넘치며 표시가격이 무려 28만 위안밖에 안된다고 한다.(신화사)



필리핀

산미구엘 푸드사 육계산업 진출에 각종 혜택

필리핀 산미구엘 푸드사는 세금감면과 각종 특혜를 준비하기 위해 통합농업지역에 육계 실습장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미구엘 푸드사의 기술 개발자들과 잠재고객을 위한 기술시험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브로일러 실습장은 시설은 273,600수 규모로 16,700만페소(약 3,340백만원)가 소요되며 생산규모는 매년 평균 생체 2.2kg을 기준으로 성계 191만5천수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 실습장은 터널환기와 크로스 환기 쿨링시스템이 설치된 계사환기조절 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첨단시설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38일령동안 사육된 닭은 가장 인접한 산미구엘 푸드사 가공공장에서 가공된다. 한편 이번 가금생산 프로젝트는 정부로부터 세금과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06 투자우대계획 일환으로 보조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